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4년 8월 22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차장 최연교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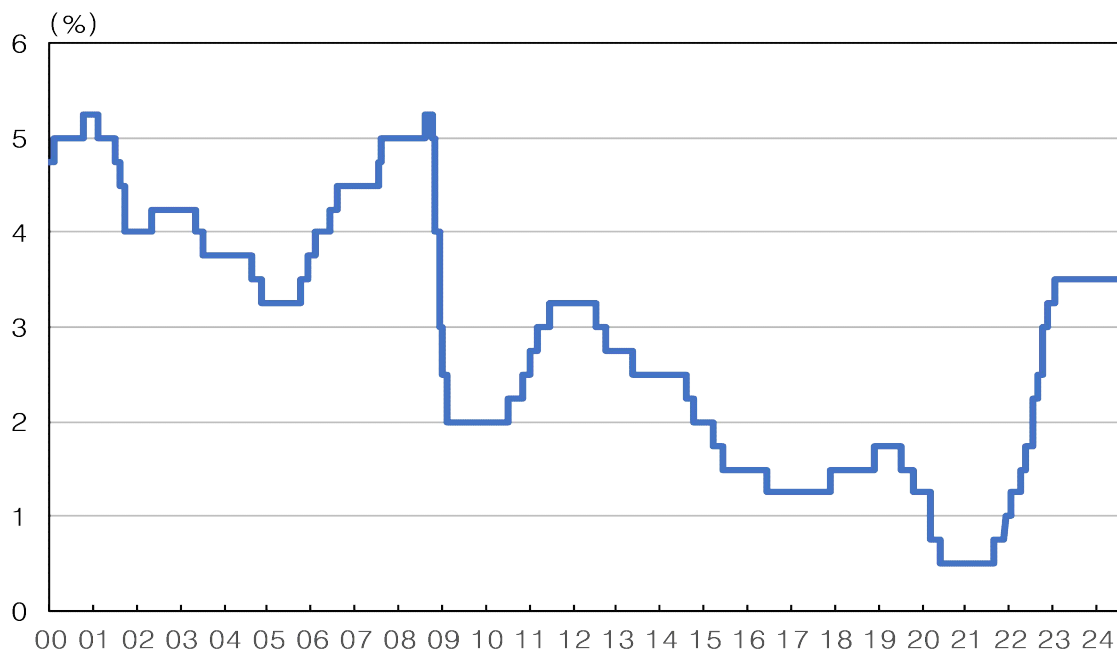
(붙임)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 대외경제 여건 ]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 세계경제지표

		2022	2023	23.3/4	4/4	24.1/4	2/4	24.5월	6월	7월
미국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1.9	2.5	4.9	3.4	1.4	2.8	-	-	
	소매 판매 <sup>1)</sup> (전기비, %)	8.9	3.4	1.4	0.8	-0.2	0.5	0.2	-0.2	1.0
	산업 생산 <sup>1)</sup> (전기비, %)	3.4	0.2	0.3	-0.4	-0.4	0.9	0.8	0.3	-0.6
	ISM제조업 <sup>2)</sup> (기준=50)	53.5	47.1	47.6	46.9	49.1	48.8	48.7	48.5	46.8
	실업률 <sup>1)</sup> (%)	3.6	3.6	3.7	3.8	3.8	4.0	4.0	4.1	4.3
	비농기취업자수증감 <sup>1)</sup> (전기비, 만명)	623.5	353.1	66.7	61.7	77.1	59.7	21.6	17.9	11.4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8.0	4.1	3.5	3.2	3.2	3.2	3.3	3.0	2.9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6.2	4.8	4.4	4.0	3.8	3.4	3.4	3.3	3.2
유로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3.4	0.5	0.1	-0.2	1.1	1.2	-	-	-
	소매 판매 <sup>1)</sup> (전기비, %)	0.9	-2.0	-0.3	0.3	0.0	0.1	0.1	-0.3	..
	산업 생산 <sup>1)</sup> (전기비, %)	2.2	-2.3	-2.0	-0.1	-0.9	-0.4	-0.9	-0.1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52.1	45.0	43.2	43.9	46.4	46.3	47.3	45.8	45.8
	실업률 <sup>1)</sup> (%)	6.8	6.6	6.6	6.5	6.5	6.4	6.4	6.5	..
	수출 <sup>1)3)</sup> (전기비, %)	18.2	-0.8	-0.9	0.7	0.9	0.2	-2.8	-0.2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8.4	5.4	5.0	2.7	2.6	2.5	2.6	2.5	2.6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0	5.0	5.1	3.7	3.1	2.8	2.9	2.9	2.9
일본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1.2	1.7	-4.0	0.3	-2.3	3.1	-	-	-
	소매 판매 <sup>1)</sup> (전기비, %)	2.6	5.5	1.9	-0.9	0.0	1.8	1.6	0.6	..
	산업 생산 <sup>1)</sup> (전기비, %)	-0.1	-1.3	-1.4	1.1	-5.2	2.7	3.6	-4.2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52.1	49.0	49.3	48.3	47.8	50.0	50.4	50.0	49.1
	수출 <sup>1)</sup> (전기비, %)	18.2	2.8	4.1	3.1	-1.3	3.0	1.3	-0.2	1.7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5	3.2	3.2	2.9	2.5	2.7	2.8	2.8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1	2.5	2.7	2.7	2.4	1.9	1.7	1.9	..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3.0	5.2	4.9	5.2	5.3	4.7	-	-	-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0.2	7.2	4.2	8.3	4.7	2.6	3.7	2.0	2.7
	산업 생산(전년동기비, %)	3.6	4.6	4.2	6.0	6.1	5.9	5.6	5.3	5.1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9.2	49.7	49.7	49.3	49.7	49.8	49.5	49.5	49.4
	수출(전년동기비, %)	5.6	-4.7	-9.9	-1.3	1.1	5.7	7.5	8.6	7.0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0	0.2	-0.1	-0.3	0.0	0.3	0.3	0.2	0.5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2	-3.0	-3.3	-2.8	-2.7	-1.6	-1.4	-0.8	-0.8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sup>4)</sup> (전년동기비, %)	3.7	-1.8	-2.8	-1.5	-1.2	..	-1.1	..	..

주: 1) 계절조정 기준

3) 역내거래 제외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되었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 지표와 장기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국 정치 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금융지표

		2023	4월	5월	6월	7.10일	7월	8.21일
국채금리 <sup>1)</sup> (%)	미국(2년물)	4.25	5.04	4.87	4.75	4.62	4.26	3.93
	미국(10년물)	3.88	4.68	4.50	4.40	4.28	4.03	3.80
	독일(10년물)	2.02	2.58	2.66	2.50	2.53	2.30	2.19
	영국(10년물)	3.54	4.35	4.32	4.17	4.13	3.97	3.89
환율 <sup>1)</sup>	달러인덱스	101.3	106.2	104.7	105.9	105.1	104.1	101.0
	신흥시장국 <sup>2)</sup>	48.1	46.2	46.7	45.9	46.4	45.9	46.1
	엔/달러	141.0	157.8	157.3	160.9	161.7	150.0	145.2
	위안/달러	7.11	7.24	7.24	7.27	7.28	7.23	7.13
주가 <sup>1)3)</sup>	전세계	727.0	756.6	785.5	802.0	824.8	814.2	827.5
	선진국	3,169.2	3,305.3	3445.2	3511.8	3613.6	3571.6	3630.7
	신흥시장국	1,023.7	1,046.0	1049.0	1086.3	1111.2	1084.8	1104.5
VIX <sup>1)</sup>		12.5	15.7	12.9	12.4	12.9	16.4	16.3
CDS프리미엄 <sup>1)</sup> (bp)	신흥시장국	167.5	177.8	162.9	174.7	159.2	169.3	163.92
	중국	59.6	69.0	62.3	66.1	57.0	63.2	61.0
	한국	27.2	37.6	35.6	36.2	35.3	34.5	34.0
유가 <sup>1)4)</sup> (달러/배럴)	WTI	71.7	81.9	77.0	81.5	82.1	77.9	72.7
	Brent	77.6	87.9	80.1	86.7	87.0	81.5	79.6
	Dubai	76.5	87.6	82.7	84.9	85.3	79.5	76.9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중, 억달러)		57.8	11.4	-29.8	122.4	-0.5 <sup>5)</sup>	242.2	19.9 <sup>6)</sup>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MSCI 기준

4) 현물 기준

5) 24.6.27~24.7.3일 기준

6) 24.8.1~24.8.14일 기준

## [ 실물경기 ]

-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간 차별화는 지속되었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1/4분기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하여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소폭 낮은 2.4%로 전망하였으며, 내년은 지난 전망치 2.1%를 유지하였다.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2	2023	23.3/4	4/4	24.1/4	2/4	24.5월	6월	7월 <sup>6)</sup>
GDP 성장률 <sup>1)</sup>	2.7	1.4	0.8	0.5	1.3	-0.2	-	-	-
(민간소비)	4.2	1.8	0.1	0.4	0.7	-0.2	-	-	-
(설비투자)	-0.3	1.1	-2.0	2.8	-2.0	-2.1	-	-	-
(건설투자)	-3.5	1.5	1.9	-3.8	3.3	-1.1	-	-	-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0.3	-1.5	-1.9	0.4	-0.5	-0.8	-0.2	1.0	..
설비투자지수 <sup>2)</sup>	2.5	-4.9	-1.9	5.0	-3.8	0.1	-3.6	4.3	..
건설기성액 <sup>2)</sup>	2.8	7.3	1.1	-2.5	4.9	-5.6	-4.4	-0.3	..
수출(통관) <sup>3)</sup>	6.1	-7.5	-9.7	5.7	8.1	10.1	11.5	5.6	13.9
- 일평균 <sup>3)</sup>	(6.3)	(-6.8)	(-9.1)	(9.6)	(8.9)	(10.9)	(8.9)	(13.0)	(7.1)
제조업생산지수 <sup>2)</sup>	0.9	-2.6	1.3	2.2	-0.5	1.5	-0.6	0.6	..
서비스업생산지수 <sup>2)</sup>	7.0	3.2	1.0	0.3	0.8	-0.3	-0.8	0.2	..
소비자심리지수 <sup>4)</sup>	95.7	97.4	102.2	98.4	101.4	100.0	98.4	100.9	103.6 [100.8]
기업경기실사지수 <sup>4)5)</sup>	81	69	69	70	71	75	74	78	73 [71]
취업자수 증감 <sup>3)4)</sup>	81.6	32.7	26.3	30.3	29.4	14.6	8.0	9.6	17.2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1	62.6	62.6	62.7	62.9	62.7	62.6	62.6	62.6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9	2.7	2.6	2.8	2.8	2.8	2.8	2.8	2.5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6) [ ]내는 24.8월

## [ 물 가 ]

- 국내 물가는 기초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6%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2%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5%로, 내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2% 및 2.0%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3.3/4	4/4	24.1/4	2/4	24.5월	6월	7월 <sup>4)</sup>
소비자물가 <sup>1)</sup>	5.1	3.6	3.1	3.4	3.0	2.7	2.7	2.4	2.6
	-	-	(1.0)	(0.7)	(0.7)	(0.3)	(0.1)	(-0.2)	(0.3)
▪ 농축수산물	3.8	3.1	2.6	7.7	10.4	8.6	8.7	6.5	5.5
▪ 공업제품	6.9	2.6	2.0	2.7	2.0	2.1	2.1	2.1	2.6
(석유류)	22.2	-11.1	-14.2	-3.6	-1.8	2.9	3.1	4.3	8.4
(석유류 제외)	4.7	4.8	4.7	3.7	2.5	2.0	1.9	1.8	1.8
▪ 전기·수도·가스	12.6	20.2	20.6	10.1	5.4	3.1	3.2	0.9	1.0
▪ 서비스	3.7	3.3	2.9	2.8	2.5	2.2	2.3	2.2	2.3
(공공서비스)	0.8	1.3	1.4	2.0	2.1	2.2	2.2	2.2	1.9
(개인서비스)	5.4	4.8	4.2	4.0	3.3	2.8	2.8	2.7	2.9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6	3.4	3.2	2.9	2.5	2.2	2.2	2.2	2.2
(관리물가 <sup>2)</sup> 제외)	4.3	3.9	3.5	3.1	2.5	2.1	2.1	2.0	2.1
▪ 농산물·석유류 제외	4.1	4.0	3.7	3.3	2.6	2.1	2.0	2.0	2.1
기대인플레이션율 <sup>3)</sup>	3.7	3.5	3.3	3.3	3.1	3.1	3.2	3.0	2.9 [2.9]

주: 1) (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 ]내는 24.8월

## [ 금융안정 ]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완화되었지만 미국 경기둔화, 엔캐리 자금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급락 후 반등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하였다.

### 국내금융지표

	2023	4월	5월	6월	7.10일	7월	8.21일
국고채금리 <sup>1)2)</sup> (3년물, %)	3.15	3.53	3.45	3.18	3.12	3.00	2.94
국고채금리 <sup>1)2)</sup> (10년물, %)	3.18	3.66	3.58	3.27	3.20	3.06	3.00
통안증권금리 <sup>1)2)</sup> (91일물, %)	3.48	3.46	3.45	3.44	3.36	3.35	3.27
CP금리 <sup>1)2)</sup> (91일물, %)	4.32	4.22	4.22	4.17	4.11	3.92	3.62
회사채금리 <sup>1)3)</sup> (3년, AA-, %)	3.89	3.99	3.88	3.64	3.57	3.46	3.46
(3년, BBB-, %)	10.33	10.19	10.01	9.73	9.66	9.49	9.42
KOSPI <sup>1)</sup>	2,655.3	2,692.1	2,636.5	2,797.8	2,868.0	2,770.7	2,701.1
원/달러 환율 <sup>1)</sup>	1,288.0	1,382.0	1,384.5	1,376.7	1,384.7	1,376.5	1,336.6
원/100엔 환율 <sup>1)</sup>	912.3	881.4	882.4	855.6	857.9	900.9	916.3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4.0	2.4	-1.0	5.3	1.9 <sup>4)</sup>	-0.1	-0.6 <sup>5)</sup>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24.7.1~24.7.10일 기준      5) 24.8.1~24.8.21일 기준

-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2	2023	23.3/4	4/4	24.1/4	2/4	24.5월	6월	7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104.8	77.4	28.2	9.5	25.0	24.1	6.9	5.3	7.8
▪ 대기업	37.6	31.9	11.6	3.8	12.6	8.3	1.1	0.7	4.4
▪ 중소기업	67.2	45.5	16.6	5.7	12.4	15.9	5.8	4.6	3.4
은행 가계대출 증감 <sup>1)</sup> (조원)	-2.6	36.9	17.6	15.2	3.5	16.9	6.0	5.9	5.5
▪ 주택담보대출 <sup>1)</sup>	20.0	51.6	19.0	16.6	10.1	16.4	5.7	6.2	5.6
▪ 기타대출 <sup>2)</sup>	-22.9	-14.5	-1.4	-1.3	-6.4	0.5	0.3	-0.3	-0.1
주택 매매가격 <sup>3)</sup> (%)	-4.7	-3.6	0.4	0.1	-0.4	0.0	0.0	0.0	0.2
▪ 수도권 <sup>3)4)</sup>	-6.5	-3.6	0.9	0.2	-0.4	0.2	0.0	0.2	0.4
(서울) <sup>3)</sup>	-4.8	-2.0	0.8	0.3	-0.2	0.6	0.1	0.4	0.8
▪ 지방 <sup>3)5)</sup>	-3.0	-3.5	0.0	0.0	-0.4	-0.2	-0.1	-0.1	-0.1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